

김원훈 "축의금 1위 하객은 신동엽, 거의 1억 냈다"

등록 2026.04.26 14:07:59



[서울=뉴스시스] 2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코미디언 김원훈, 엄지윤, 조진세가 유튜브 채널 '숏박스' 결혼식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사진=MBC 제공) 2026.04.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시스]강주희 기자 = 코미디언 김원훈이 축의금 1위 하객으로 신동엽을 꼽았다.

2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코미디언 김원훈, 엄지윤, 조진세가 유튜브 채널 '숏박스' 결혼식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들은 결혼식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엄지윤은 김원훈에게 "축의금 누가 제일 세게 했냐"고 물었다.

김원훈은 "신동엽 선배님이 제일 많이 했다. 거의 1억 정도 했다. 순박하시더라. 나는 사실 10억 생각했다"고 농담했다.

이에 엄지윤은 "진짜 분량 괴물"이라며 김원훈의 입담에 감탄했다. 이어 "본인 결혼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김원훈은 "주례가 기억에 남았다. 장인어른이 하셨는데 엄청 길게 해서 살짝 지루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